



성인이 된 인성

一. 成人이 된 仁聖

仁聖이 30週年을 맞았습니다. 30年이라면 한世代를 意味합니다. 仁聖의 한世代는 松鶴洞에서 태어나 逆境과 窮乏을 意志지 克服하고, 의젓한 成人이 되어 새 出發을 設計하여야 하는 人類社會의 한 回歸單位의 岐點에 섰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成人이 된 表示로 仁聖은 結婚式을 올리는 樣 여러 人士들을 모시고 紀念禮拜를 드리고 學校의 여러가지 施設과 活動狀況을 보여 드리며 成長한 成人으로서 不足함이 없음을 誇示한 것이 30週年 紀念 行事입니다. 來賓들이기보다도 한가족의식을 가지고 모여든 仁聖의 옛 사람들이 넓다란 體育館에 음식을 차려놓고, 過去와 現在가 會遇하여 現在속에서 各自의 過去를 되살렸던 것은 참말로 뜻 깊었던 것입니다. 卒業生과 前職教師들이 많이 오셔서 5年, 10年 或은 20年을 自己의 나이에서 덜어놓고 十代 仁聖을 즐긴 것은 누구나가 새로와지고 젊어지는 體驗을 했던 것입니다. 初創期에 校地를 마련하는데 功이 있었던 분들, 건축에 도움을 주었던 功勞者들이 招聘되어 感謝狀을 받던 瞬間, 感懷로 젖어드는 그 表情들은 洗鍊과는 담을 쌓고 묻혀 있던 純情의 天性들을 그대로 풍겨주어 善意로 投合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던 사람들만이 주고 받을 수 있던 仁聖의 眞面目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二. 過去속에 未來가

仁聖에서 살다 떠난 사람들이 200名 가까이 오랫동안 한 마당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이 仁聖으로 찾아온 것은 仁聖의 現在에서 自己들의 過去를 찾으려 온 것이었습니다. 仁聖의 물, 仁聖의 呼吸의 魂魄, 떠나고 나서도 간직하지 않을 수 없었던 所重한 것들을 仁聖의 現場에서 쏟아 놓을 수 있으려니, 찾아와서 “오고 싶었던 곳이 여기였구나.” 하고 果是 훈훈하고 후련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仁聖!

仁聖!

화려하지 않고 거창하지 못한 仁聖.

중학교 교장 金 德 鎔

仁聖은 本是 평평 쏟아지는 瀑布水가 아니었습니다. 으르렁대던 波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잔조로운 물결이 찰랑찰랑, 그러나, 어느 구석이나 빠지 않고 활아주는 물결의 平和스러운 바다! 맑게 쉬지 않고 흐르는 고요한 골짜기의 溪流, 오손도손 손 닿는 대로 다듬어주는 마음의 故鄉, 그 仁聖에 오면 층층히 걸어가는 現在 속의 未來를 볼 수가 있습니다. 過去 속에 묻힌 仁聖이 아닙니다. 現在에서 停滯하는 仁聖이 아닙니다. 前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成人이 되었다고 過去를 끊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發展을 이룬 成長의 要素들을 所重히 가꾸어 未來의 發展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와지는 方法이기에 말입니다.

三. 仁聖과 設立精神

仁聖은 歷史를 가지고 있습니다. 傳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거두어서 現在 속에 간직하는 縮地的 歷史이고 未來를 앞당겨서 오늘을 사는 傳統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높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도 分明했습니다.

또한, 가리키는 손가락은 方向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보지 않고 들린 ‘말씀’만 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設立者의 所願이었습니다. 그 精神은 永遠합니다. 精神은 말씀과 함께 仁聖에 남습니다. 仁聖의 食口는 모두가 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仁聖은 과거를 딛고 현재를 살고, 분명히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仁聖에 들렀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뒤를 이어서 몸을 담습니다. 오늘의 仁聖 食口들도 결국엔 떠나갈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仁聖은 영원히 갈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늘 앞으로 전진하는 仁聖은 욕심스러운 肥大를 避하고, 알찬 설계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校訓은 신앙이고, 자유이며, 奉公입니다. 그러한 자기희생과 奉仕를 힘쓰려는 仁聖의 精神이 仁聖을 거쳐간 모두를 적시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高貴한 空氣가 이 동산에서 가슴 가득히 마셨다가, 떠나가서 내어뿜는 仁聖人의 呼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30週年의 봉우리에 서서 드리는 우리의 祈禱입니다.